

## 기준년도 네트워크 구축(2007년)

### 1. 구축 개요

- 기존의 네트워크를 2007년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전국 지역간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구축

### 2. 구축 범위 및 내용

- 존 체계의 현행화
-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의 현행화
- 교통분석용 네트워크의 속성 갱신

<표>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범위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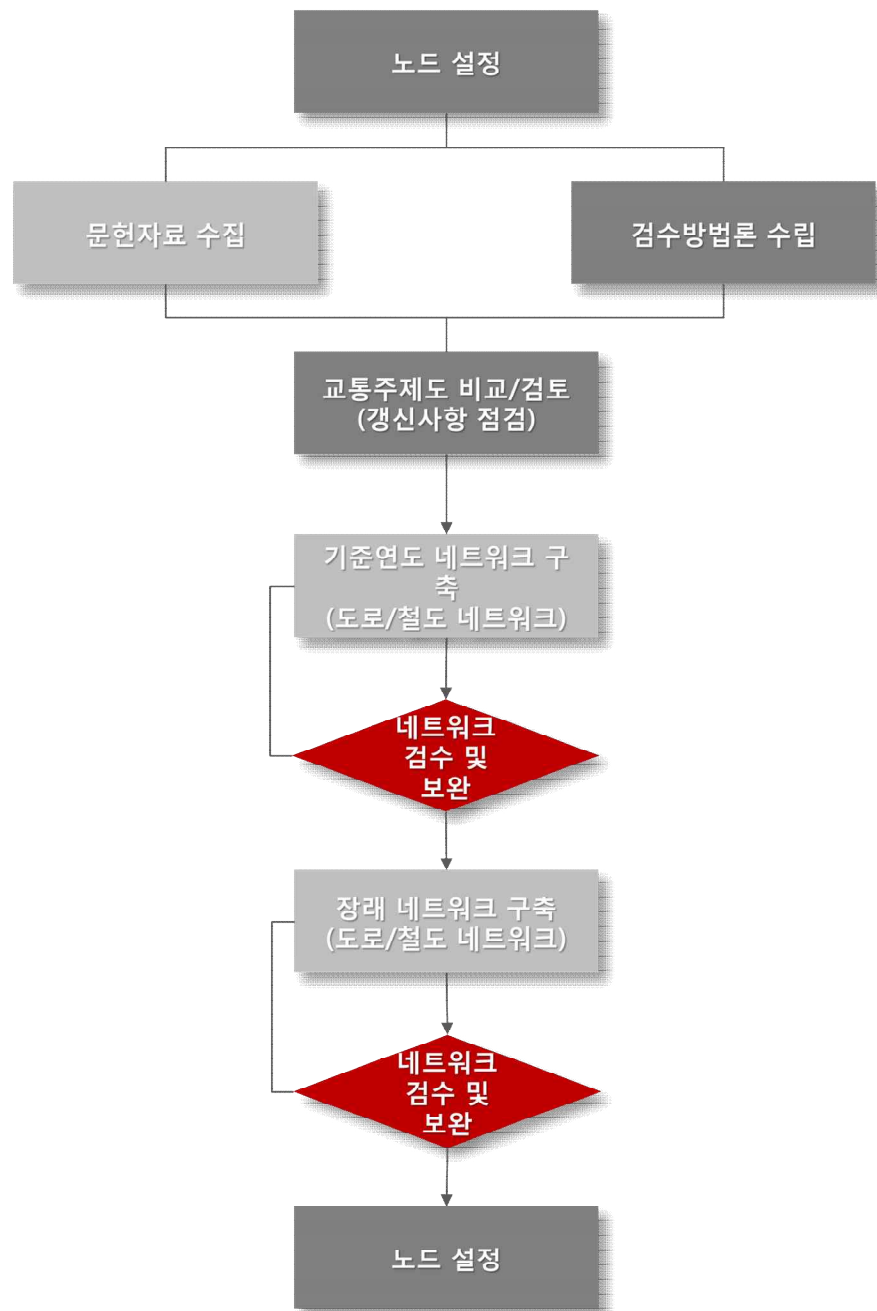
권역구분	네트워크 종류	공간적 범위		기준년도 구분
		구축지역	존 구분	
전국지역간	도로/철도	전국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도서지역 제외)	248개 (시군구 단위) 1)	2007년
				2011년
				2016년
				2021년
				2026년
				2031년
				2036년

주: 1) 장래 행복도시 추가로 인하여 2011년 이후 249개존임

### 3. 구축 방법

- 신설 및 변경된 도로 중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대상도로를 선정
- 문헌자료와 교통분석용 네트워크를 비교·검토하고 속성 변경도로를 선정
- 변경 또는 추가된 장래도로/철도계획과 노선도 자료 수집

- 변경 또는 추가 및 삭제된 철도역/철도노선과 대중교통노선정보 자료 수집
- 노드 설정 및 링크 생성, 링크 속성 갱신, 네트워크에 반영
- 센트로이드 커넥터 생성 및 Emme/2의 통행거리 및 통행배정 등의 검수



<그림> 교통분석용 네트워크 구축 절차

#### 4. 구축 결과

##### 1) 기준년도 도로 네트워크 구축 결과

- 2007년 기준 도로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2006년 기준 네트워크에 비해 약 750km의 연장이 추가 반영되었음
- 도로 등급별로는 국도가 293km로 2006년도 네트워크에 비해 추가 구축량이 가장 많아 2006년에 비해 신규 계획이 가장 많이 수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속도로와 도시고속도로의 경우 가장 적은 신규 계획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음

<표> 도로 네트워크 구축결과 (단위 : km)

구분		2007	2011	2016	2021	2026	2031	2036
2007년 기준	고속도로	6,797	7,902	9,296	9,561	9,951	12,411	12,411
	국도	28,269	28,850	29,442	29,571	29,571	29,550	29,550
	지방도/국지도	29,918	30,559	31,109	31,196	31,196	31,188	31,188
	광역시도/시군도	22,817	22,832	23,014	23,014	23,014	23,043	23,043
	도시고속도로	505	523	551	551	551	551	551
	계	88,306	90,666	93,412	93,893	94,283	96,743	96,743
구분		2006	2011	2016	2021	2026	2031	2036
2006년 기준	고속도로	6,200	8,028	9,259	9,495	9,885	12,346	12,346
	국도	27,621	28,538	29,124	29,255	29,257	29,257	29,257
	지방도/국지도	29,505	30,285	30,853	30,932	30,932	30,945	30,945
	광역시도/시군도	22,659	22,789	22,934	22,919	22,919	22,919	22,919
	도시고속도로	480	505	530	530	530	530	530
	계	86,466	90,144	92,699	93,132	93,524	95,998	95,998
구분		2007-2006	2011	2016	2021	2026	2031	2036
차이	고속도로	597	-126	37	66	66	65	65
	국도	648	312	318	316	314	293	293
	지방도/국지도	413	275	257	263	263	243	243
	광역시도/시군도	158	43	80	94	94	124	124
	도시고속도로	24	18	21	21	21	21	21
	계	1,840	521	713	761	759	745	745

2) 기준년도 철도 네트워크 구축 결과

- 2007년 기준 철도 네트워크는 전체적으로 2006년 기준 네트워크에 비해 약 173km의 연장이 추가 반영되었으나, 장래연도의 경우 네트워크 반영량이 감소하였음
- 단선의 경우, 네트워크 간략화와 철로 용량 증가를 위한 복선화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구축된 철로 연장이 단축되었음
- 복선의 경우 단선의 복선화로 인해 초기연도에 구축연장이 증가하였지만, 장래 연도로 갈수록 철도 네트워크 간략화의 영향으로 구축 연장이 감소하였음

<표> 철도 네트워크 구축 결과

구분		2007	2011	2016	2021	2026	2031	2036
2007년 기준	단선	4,141	3,185	2,948	3,320	3,156	3,097	3,097
	복선	3,781	5,332	6,320	7,068	7,621	8,135	8,135
	복복선	192	192	192	201	201	201	201
	계	8,114	8,708	9,459	10,590	10,978	11,433	11,433
구분		2006	2011	2016	2021	2026	2031	2036
2006년 기준	단선	4,218	3,099	2,995	3,399	3,222	3,095	3,095
	복선	3,532	5,308	6,331	7,125	7,677	8,192	8,192
	복복선	191	191	191	201	201	201	201
	계	7,941	8,598	9,518	10,724	11,099	11,488	11,488
구분		2007-2006	2011	2016	2021	2026	2031	2036
차이	단선	-77	86	-47	-79	-66	2	2
	복선	249	24	-11	-57	-56	-57	-57
	복복선	1	1	1	0	0	0	0
	계	173	110	-59	-134	-121	-55	-55